

# 광주시의회 내부분열 '여의도 판박이'

### 의장단 선거서 민주당 주류·비주류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 '밀어붙이기식' 반발 비주류 의총 불참... '반쪽 의장단' 전락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의장단 당내 선출 의원 총회에 앞서 일부 시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을 벌이면서 주류와 비주류 등 두쪽으로 갈렸다.

비주류 의원들은 '다수의 횡포'라며 의원총회에 불참했고 주류 측은 단독으로 '의장단 선거'를 강행하면서 '반쪽짜리' 의장단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하반기 원구성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

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이 '다수의 밀어붙이기식 의원 총회'로 횡포나 다름 없다며 불참했다.

김점기 의원을 비롯해 김광란·반재신·신수정·이경호·정무창·황현택 등 비주류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 나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마지막 최선을 다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소수와 의원들은 "그동안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하반기 원구성은 의원 상호간 대립과 갈등, 반목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해왔다"며 "그러나 원만한 원구성을

위한 양보와 타협, 대화와 토론보다는, 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정하고 그것이 다수결 원칙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의원총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수와 의원들이 의총 불참을 선언하며 '저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원장 자리배분이다.

현재 의장 후보는 김홍집 의원(남구1)과 김익주 의원(광산구1) 등 2명이 출마했다.

부의장은 조석호 의원(북구4)과 정순애 의원(서구2)이 후보등록했다. 애초 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점기 의원(남구2)은 불참했다.

5개 상임위 중 2곳은 행정자치

위원장 이홍일 의원(동구1), 교육문화위원장 김나윤 의원(북구6) 등이 각각 단독 출마했다.

나머지 운영위원장은 최영환(비례)·신수정(북구3), 환경복지위원장은 송형일(서구3)·김광란(광산4),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정환(광산5)·정무창(광산2) 의원이 등록해 경선으로 치른다.

광주시의회는 총 23명이다. 민주당 소속이 21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민주당이 일당독점 구도이다 보니 민주당 원구성 후보 선출이 곧 시의회 원구성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전반기부터 분열돼 심각한 내용을 겪은 민주당 내 다수와 소수와 간 갈력 다툼이다.

다수파는 이미 자리 배정이 끝난 만큼 의장과 부의장 2자리, 상임위원장 5자리까지 표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수파는 "대화과 타협을 통해 협력적으로 진행하자"며 최소 상임위원장 2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요구한다.

주류파는 이날 오전 반쪽짜리 의원 총회를 강행하고 김홍집 의원을 하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부의장 후보에는 조석호·정순애 의원을 각각 1·2부의장으로 뽑았다. 다만 5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논의 통해 다시 뽑기로 했다.

의장 후보로 나선 김익주 의원은 "비주류측 의원 7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투표가 의미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비주류 의원은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라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 동구, 지역중진작가와 문화관광 활성화 간담회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작가와의 정기 간담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지역 중진작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정혜영 예술의거리 작가지장, 채종기 관장, 한희원 관장 등 지역의 명망 있는 중진작가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문화예술·도시재생·인문도시 등의 구정현안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상(VR) 전시실 개관

광주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위축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상(VR) 전시실'을 1일 개관한다.

'빛고을국악전수관 가상(VR) 전시실'은 이용자가 국악전수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가상(VR) 전시실은 2층 기획전시실과 3층 국악기전시실을 파노라마로 촬영해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시실의 국악기를 클릭하면 해당 국악기의 설명을 볼 수 있으며, 전시실에 머무는 동안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과 보유자 조창훈 명인의 연주가 흘러나오는 등 실제 방문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 김병내 남구청장, 취임 2주년 앞두고 소회 밝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30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남구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광주 남구권의 관문이자 상징인 백운광장 일대 부흥 신호탄이 솟아 올랐다"며 "남구발전의 중심축을 구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심 리빌딩이 본격 시작됐다"고 소회했다.

더불어 호남 최대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촌동 일원 국가 및 지방산단이 광주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돼 남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 북구, 양산동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명칭 공모

광주 북구는 12월 양산동에 개관 예정인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의 정식 명칭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북구의 특성과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의 상징할 수 있는 창의적 명칭을 발굴·선정하고자 실시된다.

공모 기간은 13일까지로,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북구는 적합성과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등 심사를 거쳐 7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당선자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2명) 각 10만원, 장려상(2명) 각 5만원을 시상한다.

## 광산구,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장관상 수상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95.22점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전국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등 34개 지표로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살폈다.

## 전남도 의회 하반기 의장에 김한중...민주 상임위 '독식'



왼쪽 왼쪽부터 김한중 의장, 구복규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 아래는 왼쪽부터 운영위원장 전경선,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강정희, 경제문화관광위원장 이현창,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 농수산위원장 정광호, 교육위원장 유성수.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후반 기 의장으로 김한중 의원(더불어

민주당·장성2), 제 1·2부의장으로 구복규(화순), 김성일(해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58명의 의원 중 5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7명)을 선출했다.

의장에 단독 출마한 김한중 의원의 경우 투표한 55표 중 48표를 얻었으며, 기권은 7표였다. 구복규 부의장(48표), 김성일 부의장(47표)도 과반수를 넘어 당선됐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에 전경선(목포5),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목포1),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강정희(여수6), 경제문화관광위원장 이현창(구례),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여수4), 농수산위원장 정광호(신안2), 교육위원회 유성수(장성1)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과,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에는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출마, 민주당 강정희 의원과 경쟁구도가 됐으나 표 대결 끝에 강정희 의원이 선출됐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저소득층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금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한국건강관리협회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엔 엄수하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의무를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민건강관리협회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